



Hello! I am Sr. Mary Elizabeth Schrei. Since we have several “Mary Elizabeths” in the community, I always make sure to include my last name! However, most people call me “Betsy”, a name I gave myself when I heard people calling my mother “Betty”!



I grew up in Sheraden in the West End section of Pittsburgh; went to Holy Innocents Elementary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n both schools I was privileged to be taught by the Sisters of Charity who were a great influence on my vocation. I entered the community after high school with five other young women from Elizabeth Seton, 63 years ago. I think God planted the seed of my vocation in me at a very early age when I would wait for the sisters to return to Holy Innocents Convent each August so I could help them get settled before school began! Little did I know that I would one day return to that very convent as a Sister of Charity to teach friends and neighbors with whom I grew up!



Teaching was in my blood. As a grade school student, I used to be asked to teach classes to the younger students. So when I was assigned to schools in Altoona, Maryland and Pittsburgh I had already had some experience but was meant to teach language arts in the middle school for most of my teaching career. However, no matter what school or parish I was ministering in, I was always involved in parish worship and activities. From reading and hearing about the life of



Mother Seton, I knew that this was her way of life before and after her conversion to Catholicism. She loved the Church, and especially the Eucharist.

My teaching experiences took me to Altoona, Glyndon, Maryland and several parishes in Pittsburgh. My last classroom teaching was at Sacred Heart in Shadyside for two years after which I became principal of Sacred Heart. My teaching experience was of great value for the challenge of being an administrator for the next 25 years in Pittsburgh, Clairton and Robinson. I loved being able to deal with students of all ages as well as teachers, pastors and parents. It was in this position that I found how important communication is to build a Church-School community.



After a sabbatical in Boston, 16 years ago, I decided to use my skills in another field and became a Pastoral Associate at St. Bede’s Parish in the East End of Pittsburgh. I love this work! I wear many hats in this position from preparing young parents for the baptism of their first child to helping prepare the funeral liturgy with those whose loved one has gone to God. I have found the “ministry of presence” to be most rewarding. I am present to the whole parish and school from 3 year old

preschool children to the homebound and elderly and those on their way to heaven. I feel I am truly following Mother Seton’s directive to “Be children of the Church.”



안녕하세요! 메리 엘리자벳 쉬라이 수녀(Sr. Mary Elizabeth Schrei)입니다. 우리 수녀회에는 여러 명의 ‘메리 엘리자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성인 ‘쉬라이’까지 붙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를 ‘벤티(Betsy)’라고 불러요. 저의 어머니를 ‘베티(Betty)’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제가 직접 붙인 이름이에요.



저는 피츠버그 웨스트 엔드에 있는 셰라든(Sheraden)에서 자랐고 홀리 이노센트 초등학교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Holy Innocents Elementary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

다녔습니다. 두 학교에서 모두 저의 성소에 큰 영향을 미친 우리 수녀님들이 가르쳤어요. 63년 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 졸업생

다섯 명과 함께 입회를 했어요. 제 생각에 하느님께서서는 매우 일찍 제 안에 성소의 씨앗을 뿌리신 것 같아요. 학창시절 해마다 8월이면 학교 수녀님들이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학기가 시작하기 전 정리하시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사랑의 수녀가 되어 친구들과 이웃들을 가르치러 바로 그 수녀원으로 오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가르치는 일은 저의 천직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에도 저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곤 했지요. 제가 알투나와 메릴랜드, 피츠버그의 학교로 파견 받았을 때 이미 교직 경험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학교든 본당이든 저는 항상 본당의 미사와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더 씨튼의 생애에 관해 읽고 들으면서 이러한 본당 활동이야 말로 바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전과 그 후의 마더 씨튼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더 씨튼은 교회, 특히 성찬례를 사랑했지요.

저는 알투나와 글린돈, 메릴랜드와 피츠버그 지역의 여러 본당에서 교육 사도직을 했습니다. 세디사이드에 있는 세크레드 하트 학교(Sacred Heart School)에서 2년 동안 마지막 교단 생활을 한 후 세크레드 하트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교직 생활은 그 후 25년 동안 피츠버그와 클레어톤, 로빈슨에서 행정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저는 모든 연령 대의 학생과 교사, 사목자 및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행정직을 하면서 교회-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지요.

16년 전, 보스턴에서 안식년을 보낸 후 저는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피츠버그 이스트 엔드 지역의 성 베다 본당(St. Bede's Parish)에서 사목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무척 좋아해요. 첫 아기의 세례를 준비하는



젊은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일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보내는 장례미사를 준비하도록 돕는 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저는 이 ‘현존 사도직’이 가장 큰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3살짜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집 안에만 있는 노인들 그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이들과 함께 모든 본당과 학교활동에 함께 하지요. ‘교회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하신 마더 씨튼의 말씀을 제가 진정으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